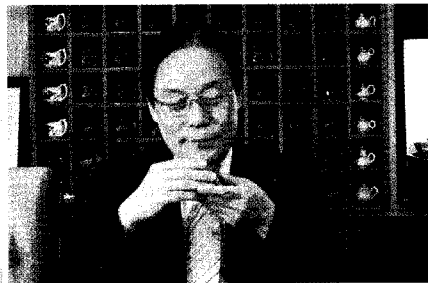


김길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영남차회 이사장



전국 최초 '꿀' 박사 1호인 禾村 金吉雄(66)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禾村'은 '벼가 무르익어가는 들판'의 상징으로 40여 년간 오직 잡초학 외길만을 걸어온 김교수의 일평생 삶을 함축한 의미와 다르지 않다. 잡초학 분야의 선구자였으며 고결한 인품과 학덕을 겸비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존경심이 적지 않다. (사)영남차회 이사장, (사)에그리비즈니스포럼 공동대표, 중국 연변대학교 농과대 겸직교수 등 1973년 오직 나라의 쌀 자금을 위해 먼 이국 필리핀의 뜨거운 태양아래서 쏟아 부은 청춘의 열정만큼이나 비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한국의 다도정신인 중정(中正)의 삶을 살아가는 김교수를 대구 청류다원에서 만나보았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비교적 건강합니다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식과 걷기운동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퇴임 후 '영남차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데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실은 차를 애호하는 동호인 단체로 모였다가 법인화 한 단체입니다. 차 문화예절에 대한 지도자 육성(초급, 중급, 고급, 심화과정 개설) 및 대중화를 위해 대 시민 무료강좌와 현대예 등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꿀' 박사 1호로 40여년간 농학의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외람되지만 퇴임후 학자로서 본인을 평가하신다면?

전공하는 분야에만 몰두하다보니 주변을 두루 돌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2001년 일본 잡초학회 40주년 기념대회 참석(좌)
2007년 호주 왈스스투드대학
프레트리 교수와 함께(우)

“무조건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위해 다양한 교육 홍보 필요”

잡초가 학문 분야로 인식되지 못한 초창기에 학문의 한 영역으로 발전하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하였다는 생각에 그다지 후회는 없습니다.

농약관리위원회 농약관리위원 겸 제초제분과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자 입장에서 고견을 주신다면?

대부분의 농약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었고, 안전성이 확인되어야만 농약으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 농약을 적기에 적량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또 농약은 무조건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74년 통일계 벼 품종(유신) 200kg을 필리핀에 가져가 5개월 만에 105으로 늘려 고국으로 수송 하는 등 한국의 보릿고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하셨는데 당시를 회고하신다면?

배가 고과 물로서 대신 했던 보릿고개를 보낸 그 당시로선 밥을 그것도 쌀밥으로 마음껏 먹어보고 싶은 것이 일차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쌀 자급을 이를 목적으로 해외 종자증식사업에

책임자로 참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대지방의 따가운 햇살아래 300마지기(15ha) 논을 매일 한바퀴 돌고 나면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됩니다. 쌀 자급을 이룬 녹색혁명에 참여한 것을 일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평소 '식량자급 해결은 소명과도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을 제고 방안을 말씀해주신다면?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산업화의 성공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식량수입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농업은 기상 등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산업입니다. 언제 흉작이 될지 모릅니다. 유비무환의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유사시 골프장이나 유희 농경지를 포함한 전 국토의 식량생산화 프로그램을 비롯, 농경지가 아닌 도시의 모든 공간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 도시에 전천후의 식물공장을 만들어 다량의 채소를 생산하는 프로그램,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해외 식량생산기지 건설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농경지를 잠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1차 산업 관행에서 탈피, 저장·가공·유통을 포함한 2, 3차 산업으로 진보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농업은 바이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성에 대해 줄곧 농산물 중 진류농약만을 연상하는데 전문가로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근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농약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며 식품안전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에는 수만 가지의 2차대사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는 농약성분 못지않게 독한 성분도 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면 농약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여러 경로로 분해되어 농약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하도록 철저히



2005년 중국 운남성 차 원산지 방문



2007년 FAO-Chia 세미나 참석

산업의 핵심자원입니다. 단순히 먹거리 생산만이 아니라, 농촌 '어메니티(amenity)'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특유의 자연환경과 지역문화 등 사람들에게 쾌적성과 만족감을 주는 '어메니티'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농약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며 재임 시와 퇴임 후의 농약을 보는 시각은?

농약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국내 농약산업도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합제를 제조할 때는 약제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초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생명공학작물(GMO) 이용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고 도입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도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전공학문이외에 수필집 풀과 차와 더불어 한 삶을 발행하셨는데 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계시는 듯 합니다만?

풀(草)과 나무(木) 사이에 사람(人)이 있는 차(茶)의 한자에서 보듯 차는 자연 속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전공이 풀(잡초)이었으니 차와의 만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차와의 만남이 저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후학들을 위해 특별히 당부의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분야보다는 특별히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깊게 연구하고 자료를 집대성하다 보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어이외도 1~2개의 외국어를 익히는 것은 자기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것입니다. Y